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 訓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어항을 어촌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 항포구 일제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어촌의 생산·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낙후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어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 남당항 등 6개 어항을 종합기능항으로 본격 개발하고, 강원 안목항 등 6개 어항에 관광기능 등을 보완한

정비계획을 수립, 연차적 어항정비계획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오·하수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를 위한 차단 시설과 방파제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어항의 다기능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방법을 개선, 주거환경개선과 어촌관광 활성화사업에

주력하며, 2005년 이후에는 항포구의 일제정비 등 정주여건의 개선 및 어업의 소득원 개발 등 새로운 시각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에는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이 풍부한 곳에 체험관광마을 8개소, 어촌민속전시관 4개소를 선정하여 전시관 수족관 시청각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주토록 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15기 한국어항협회정기총회 개최 2월20일 건설회관 3층중회의실에서

미스코리아출신 김소형 한의사 초청 특별강연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2월 20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 200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에

서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을 시상과 함께 특별행사로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한의사 김소형 사랑의 한의원 원장을 초청, 건강보감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54개 국가어항에 1466억원 1/4분기에 59.8% 배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4분기에 주요 어항공사의 집중발주 계획에 따라 어항시설비의 59.8%인 877억원을 1/4분기에, 2/4분기에는 나머지 40.2%인 589억8600만원을 배정, 54개 국가어항에 총 1466억86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어항 시설비는 국고보조와 지방비가 각각 250억원으로 총 500억원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1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88억1200만원, 제주 47억5400만원, 강원 46억6000

만원, 충남 46억3000만원, 경북 42억3200만원, 부산 29억7800만원, 인천 29억3000만원, 전북 29억2200만원, 경기 15억4600만원, 울산 11억5200만원 순이다. (2002년도 지방어항 시도별 예산 3면 참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항중심 어촌정주단지 조성

어항·어장·어촌 종합개발 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각지방청의 어항별 시설 설계현황 및 발주계획을 종합 점검하여 사업비를 배정함에 따라 항별 설계가 끝나는대로 서둘러 계약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항중심 어촌정주단지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어항 및 배후어촌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어항에 쾌적하고 편의 복지시설을 갖춘 어촌정주환경의 조성, 어항 인근해역에 종묘생산 및 육성 시설 지원, 인공어초 투하 등 인공어장조성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어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 지방어항예산 조기 집행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보면 △부산 : 대변항 60억원 △인천 : 울도 덕적도 선진포항 등 3개항에 50억원 △여수 : 녹동 풍남 국동 안도 초도 남도 여호 내발 시산 회진항 등 10개항에 225억원 △마산 : 구조라 맥전포 광암 삼덕 매물도 원전 지세포항 등 7개항에 155억원 △울산 : 방어진 정자항 등 2개항에 50억원 △동해 : 거진 입원 남해 공현진 안목 수산항 등 6개항에 208억원 △군산 : 격포 어청도항 등 2개항에 70억원 △목포 : 보옥 독암 청산도 서망 전장포 소흑산도 여서항 등 7개항에 219억원 △포항 : 감포 저동 구산 오산 대보 양포 현포항 등 7개항에 264억원 △제주 : 모슬포 김녕 위미항 등 3개항에 50억8600만원 △대산 : 모항 남당 의연도 오전 안흥 흥원항 등 6개항에 115억원이다. (2002년도 국가어항항별 예산배정현황 3면 참조)

경상남도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 등 지역건설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올해 지방어항 및 인공어초 시설분야에 투자할 도 자체 사업비 173억원을 모두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인공어초 시설공사 8건 82억원, 지방어항 기본계획 수립 2건 1억원 및 지방어항 시설 설계 2건에 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남도가 올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방어항 시설사업 12건 88억원,

또 마산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될 지방어항 시설사업 11건 18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사업 13건 21억원, 소규모주민 편의사업 11건 10억원 등 총 35건 49억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대망의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어둠이 걷히듯 희망과 행복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항인 여러분!
모두에 대망의 2002년 새해를 강조한 것은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올림픽보다 더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안 게임이 열리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등 중차대한 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런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수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국제규제 강화로 어장이 축소되고, 뉴라운드로 인한 어업경영 여건의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수산업계와 어항업계에 많은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같은 많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발전이나 좌절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어항협회 역시 요동치는 대격동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결코 순탄하다고 볼 수 없었던 지난 한해동안 우리 어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은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를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으로 우리나라 어항개발 발전 방향의 제시, 해양환경정화사업의 성과 거양, 한·일·중국제교류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밖에 해외어항어촌조사단 파견, 장학사업, 자매결연사업 등 크고 작은 내실있는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어항인의 의지와 노력, 단결이 이어진다면 2002년에 예상되는 경기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자

침체를 비롯한 세계 경제계의 도전 등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젠 결코 두려워 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자세는 바로 퇴보를 의미하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2002년 한국어항협회의 사업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어항어촌의 종합적 발전 촉진, 둘째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 강화, 셋째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 추진, 넷째 어항인의 총의 결집 및 충실한 대변, 다섯째 조직경영 가치혁신의 과감한 실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회의 기본방향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실천 목표를 설정해 대격동기에서도 한점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강력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어항인 여러분!
역사엔 가정이 없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면, 그때 조금만 더 단결했다라면, 그때 조금만 더 협동했다라면 하고 후회하는 그런 어항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하며, 이를 소홀히 하다간 자칫 역사의 부끄러운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한국어항협회의 역사는 바로 참초와 같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우리는 이제 수산업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단결하고 협동한다면 우리는 2002년 새해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어항인들이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그런 2002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어항인 여러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 정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은 1월 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단체 임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9일 가락도동매시장을 방문, 수산물거래동향과 시장 현황 청취 및 시설을 둘러보고 유통종사자들을 격려, 10일에는 신라호텔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부산신항만(주) 미국CSX WT사 간의 부산신항 민자사업관리 운영업무 위탁계약식에 참석, 11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12일에는 제주도에 출장 해양수산 관련기관을 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15,16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태 및 EU지역 교통·환경 장관회의에 참석, 18일에는 국제해사기구 A급 이사국 진출을 축하하고 방한중인 이 기구관계자와 국내관련인사를 초청, 만찬.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1월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하기관단체 임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포럼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1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이어 고연회 정기총회에 참석, 18일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초청만찬에 참석, 21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정기월례회의에 참석, 22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제51

차회의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1월7일 강원도 고성군수협 대진어촌계 등 강원지역을 순시, 11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12일에는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및 제주수협을 방문.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시관광장 신년하례식에 참석, 14일에는 가사조정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범죄예방자문위원회에 참석, 21일에는 광주방송문화재단 이사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월2일 건설공제조합 서울지역선임대의원 상견례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현정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자유총연맹 및 한국관광공사 신년인사회에 참석, 15일에는 전경련국제경영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19일에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25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간담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용봉경영포럼 조찬연수회에 참석, 10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9차 청소년 정책토론회에 참석, 15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총회 및 총력전진대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서명식에 참석, 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1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제7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8일 해남우항리 공룡박물관 공사현장에 출장. 인 시 ▲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 △수산정책국장 박덕배 △해운물류국장 강무현 △국제협력관 김덕일 △어업자원국장 이용수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장 민경태 △국립해양조사원장 이광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최장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만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파견 서정호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형남 △박남춘 △국방대학원 파견 신평식 □과장급 인사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 임현철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김이운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정봉섭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장 박규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임기택 △해운물류국 선원노동과장 박용문 △항만국 항만정책과장 이용기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송민순 △항만국 기술안전과장 윤병구 △수산정책국 유통과장 주성호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장 박종국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장 심호진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박호근 △국립수산진흥원 기획관리과장 이경일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 교학과장 장병희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김석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윤정현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정재춘 △국립해양조사원 관리과장 윤우용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최영섭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장 오순복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황세열 △국립해양조사원 부산해양조사사무소장 한길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장 이상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용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정도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최준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조병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박준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양태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이성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박준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장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석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용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심판 수

석조사관 임금수 △장관비서관 이장우 △청와대 파견 문해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성기만 △해양수산부 근무 유재만 이문희 민병훈 유상정 추교필 김태진. 학 속 ▲박희도씨(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장)의 딸 윤정양은 26일(토) 낮 12시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화축을 밝힌다. 번 경 ▲함의기씨는 최근 동인개발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조사연씨는 최근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이사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외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공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주식회사대아(회장 이정균) ▲영진건설주식회사(사장 김규룡)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사장 이호순)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동철) ▲후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정웅) ■개인 ▲김남형씨(제주대학교 교수) ▲김용배씨(부산광역시 수산행정과) ▲양명석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이경희씨(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홍근순씨(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65건 항만공사 1/4분기 발주

월 2회 집행실태조사 통해 공사지연 최소화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항만 건설물량의 91%인 65건, 6,399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1/4분기에 집중 발주할 계획이다. 지방해양수산청별 1/4분기 공사집행계획에 따르면 부산청은 1,842억원의 사업비로 부산신항 호안 등 9개 항만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중 2부두 남측잔교, 부산신항 방파제 등 7건의 공사는 이달중 조달청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천청은 9건 704억원 규

모의 공사발주를 추진키로 하고 인천항 갑문문짝중설 등 6개 사업의 설계작업을 완료했으며 평택항 항로준설, 제3준설도 투기장 호안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7개 항만공사의 계약요청을 2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여수청의 경우 10건 867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중 여수구항 정비, 나로도항 서방파제공사 등 2건의 공사는 이미 조달청에 계약요청한 상태이며, 광양항 진입항로준설, 여수항 안벽공사 등 8개 공사는 이달

중 설계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목표청은 8건 448억원, 울산청 3건 475억원, 군산청 5건 837억원, 동해청 5건 303억원, 제주청 6건 421억원, 포항청 5건 297억원, 마산청 3건 116억원, 대산청 2건 84억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금년도 조기발주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2회씩 지방청별 집행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된 항만 중장기투자계획으로 오는 2011년까지의 항만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차 계획보다 3.7배가 늘어난 37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북아 항만물동량 증가추세에 대비, 부산항과 광양항을 국제물류비가 가장 저렴한 동북아중추항만으로 개발키로 하고 2011년까지 이들 2개 항만에 컨테이너부두 62선석과 기반 기능시설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또 이들 2개 중심항만과 연안거점항만간의 컨테이너 유통망 구축을 위해 인천항 평택항 대신항 군산항 목포항 등 9개 항만에 36개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인천남외항과 양양항을 신규 신항만으로 지정,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눠 중심항만과 지역거점항만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의 경우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대신항 보령항 등 5개항의 시설기능을 제고, 대중국 교역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또 서남권의 목포항과 동남권의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 마산항은 지역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항만으로 집중 개발키로 했으며 태백권의 동해항 속초항과 제주권의 제주항 제주외항은 대북방교역 및 관광자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어업기반시설 개발 '활기'

제주도, 연안정비사업도 병행

올해 제주지역 어업기반시설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해양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150억6000만원을 들여 5개 분야 어업기반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9억7800만원을 투입해 남제주군 남원읍 신희리와 태흥리, 표선면 표선리와 세화리,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등 도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업기반시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들여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와 구업리,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와 신양리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침식방지시설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내 13개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49억원으로 추진하며 항만근로자복지센터 2개소 건립에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접안시설 367선석 건설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항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37조원을 들여 전국 28개 무역항에 367선석 규모의 접안시설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양항체제와 연계,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인천남외항과 양양신항을 신규 신항만으로 지정, 국제 무역항으로 육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갈

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항만별 시설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은 지난 92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새로 마련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물레 버린 오물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팽목·신마항 등 4개항 연안항으로 집중 개발

해양수산부는 용기포 신마 팽목 추자항 등 전국 4개 연안항을 지역중심항만으로 집중개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 등 내방객 증가로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용기포, 신마, 팽목, 추자항 등 4개 지역 항을 국가 연안항으로서 올해부터 본격

적인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4개항은 해상 교통 수요에 비해 접안 및 하역능력이 턱없이 모자라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 4개항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의 경우 항만별 기간시설에 대한 기본 실시계획에 착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연안항 개발사업에는 총 19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본격적인 시설공사는 2004년에 착수될 전망이다. 항만별로는 인천 웅진군 용기포항의 경우 468억원을 들여 500톤급 4선석 규모의 여객부두와 방파제, 호안 등의 외곽시설을 오는 2007년까지 건설하고 2011년까지 카페리 화물부두 등을 추가로 확충한다.

500톤급 3선석 규모의 차도선부두와 3천톤급 화물부두를 오는 2011년까지 건설하는데 총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경우 500억원으로 500톤급 4선석의 접안시설과 외곽시설, 여객 화물부두 1선석 및 투기장 등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물양장과 방파제 시설만 갖추고 있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의 경우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접안 시설 및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2011년까지 5천톤급 1선석과 관리부두 및 호안시설을 추가 건설하는데 총 4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2년도 국가어항 항별 예산배정현황

(단위 : 백만원)

지방청	항 명	예 산	분기별 배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합계	54개항	146,686	87,700	58,986		
비율			59.8%	40.2%		
부산	대 변	6,000	6,000			
인천	3개항	5,000	3,500	1,500		
	울 도	500		500		
	덕적도	3,500	3,500			
	선진포	1,000	1,000		신규	
여수	10개항	22,500	16,500	6,000		
	녹 동	2,000	2,000			
	풍 남	3,500	3,500			
	국 동	2,000	2,000			
	안 도	2,000		2,000		
	초 도	3,500	3,500			
	남 도	3,500	3,500			
	여 호	1,000		1,000	이월	
	내 발	2,000		2,000		
	시 산	2,000	2,000			
	회 진	1,000		1,000	이월	
	마산	7개항	15,500	7,500	8,000	
		구조라	2,000	2,000	2,000	
맥전포		1,000	1,000	1,000	이월	
광 암		1,900	1,900	1,900		
삼 덕		2,500	2,500	2,500		
매물도		4,500	4,500	4,500		
원 전		500	500	500	신규	
지세포		4,000	4,000	4,000		
울산		2개항	5,000	3,000	2,000	
방어진	2,000		2,000			
정 자	3,000	3,000				
동해	6개항	20,800	17,800	3,000		
	거 진	1,000		1,000		
	임 원	3,000	3,000			
	남 애	1,000		1,000		
	공현진	1,000		1,000	이월	

지방청	항 명	예 산	분기별 배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동해	안 목	7,000	7,000		
	수 산	7,800	7,800		
군산	2개항	7,000		7,000	
	격 포	1,000		1,000	
목포	7개항	21,900	10,500	11,400	이월
	어정도	6,000		6,000	
	보 옥	3,500	3,500		
	득 암	3,500	3,500		
	청산도	1,500		1,500	
	서 망	3,000		3,000	
	전장포	400		400	
포항	7개항	26,400	15,200	11,200	
	소흑산도	3,000		3,000	이월
	여 서	7,000	3,500	3,500	"
	감 포	3,500	3,500		
	저 동	1,200		1,200	
	구 산	4,000		4,000	
	오 산	4,000		4,000	
	대 보	2,000	2,000		
	양 포	2,000		2,000	
	현 포	9,700	9,700		
제주	3개항	5,086	700	4,386	
	모슬포북	1,400		1,400	
	모슬포남	2,000	700	1,300	
김녕	686		686		
	위 미	1,000		1,000	
대산	6개항	11,500	7,000	45,000	
	모 항	5,000	5,000		
	남 당	1,500		1,500	이월
	외연도	1,000		1,000	유지
	오 천	2,000	2,000		"
	안 흥	1,000		1,000	" (이월)
홍 원	1,000		1,000	"	

2002년도 지방어항 시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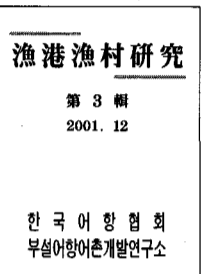
시 도 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50,000	25,000	25,000
부 산	2,978	1,489	1,489
인 천	2,930	1,465	1,465
울 산	1,152	576	576
경 기	1,546	773	773
강 원	4,660	2,330	2,330

시 도 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충 남	4,630	2,315	2,315
전 북	2,922	1,461	1,461
전 남	11,384	5,692	5,692
경 북	4,232	2,116	2,116
경 남	8,812	4,406	4,406
제 주	4,754	2,377	2,377

‘어항어촌연구’ 제3집 발간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는 최근 연구논문집 ‘어항어촌연구’ 제3집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 논문집에는 △어항민족의 이론적 모형에 관한 연구 △어항개발 수준에 대한 어항 관리자들의 인식 △소파케이슨방파제에 적용하는 반사파 △근해어업의 종합적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역개발제도: 현황과 문제점 △삼각블록을 이용한 방파제 및 호안의 중간피복공법 △선형분산 방정식의 양적 근사해법 △중소 정보통신업체 자금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항성 파랑의 입사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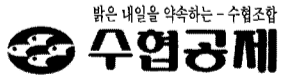
른 이안제 제두부의 안정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해안 구조물 전면의 Stem Wave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 어항시설물의 평면적 미도 평가에 관한 연구 △SMAC법을 이용한 월파현상의 가시화 모의 △어항건설과 갯벌의 공생 등 13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해양수산부 설 성수품 집중 관리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조기, 명태, 오징어, 김, 고등어, 갈치 등 6개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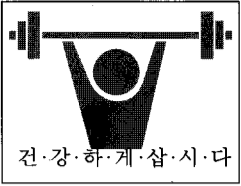
이 기간 해수부는 매일 조기 560t, 명태 1천180t, 오징어 1천680t, 김 28만속을 시장에 풀어 공급량을 평소의 2배로 늘리고, 최근 가격 오름세인 갈치와 고등어는 같은 기간 각각 189t, 453t을 수급에 따라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수협중앙

회 바다마트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아파트단지 중심의 직판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지도반을 남대문시장, 가락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시내 유명 백화점에 보내 수산물 가격 동향을 1일 단위로 점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은 예년에도 설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라면서 ‘고등어와 갈치의 경우 최근 시세가 불안정해 가격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직장인 건강설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올해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종합적인 설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담배는 무조건 끊자
담배를 즐기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담배도 못 끊을 정도의 의지라면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식당, 호텔, 병원, 기차 등 어디에서든 요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자
적어도 일주일에 2일은 간을 쉬게 하는 날이 필요하다. 술좌석에 가더라도 억지로 권하는 술은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술을 거부했다고 진급을 안 시키는 직장이나 상관이 있다면 일찌감치 그 직장은 떠나는 것이 좋다.

식사는 세끼를 일정하게 하자
아침은 꼭 먹고 간식은 피하며 심겁게 먹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자. 간식이나 폭식은 삼가하고 커피나 콜라를 많이 먹는다면 당장 줄여야 한다.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자
직장인은 적어도 살이 찌서 배가 나오면 안 된다. 예전에는 배가 나오면 사장 배라고 했지만 요즘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이다.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운동을 하자
테니스, 헬스, 수영 등이 좋다. 일부러 운동을 못하겠다고 많이 걷는 생활습관을 기르자. 회사 내에서도 가능하면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자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다는 말이 있고 또 사실이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진단에 쓰는 돈을 아껴 워 하지 말자

술을 먹거나 외식하는 돈은 평평 쓰면서도 건강을 위한 활동에는 인색하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믿을 만한 검진 센터를 정해 놓고 일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자. 매년 해보면 똑같은 검사만 되풀이하고 별 것 없다고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매년 검사를 해 어떤 숫자라도 변화가 있으면 중요한 것이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

생활정보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중산·서민층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을 총 1.7조원 경감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평균10%인하
-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3천만원이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 장애인·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장애인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신설
 -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 하우스용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등 5종
 -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양어장용 비닐, 목재 어상자 등 8종
- 중산·서민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지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1억원이하의 주택소유권이 전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이하 대출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영세상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신용카드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결제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추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PG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영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카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 및 영세 쇼핑몰의 신용정보를 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업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백화점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으로 전환하여 그 업무가 제한적인 유통업자의 카드업 영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 및 카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변조 카드의 제작,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카드를 취득한 자 및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한 장비를 취득하는 자 등 카드 위·변조를 예비모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됩니다.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작년보다 3.5% 인상됩니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62] 第4章 地盤改良工

(6) 시험타설
처리말뚝 타설에 앞서서 계기확인, 공타, 시험말뚝 타설을 한다.

① 계기확인
시공관리용의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아래 계기중, a~c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d~h는 필요에 따라 비치하는 것이다.

- 시멘트 슬러리 유량계
- 처리기 승강 속도계
- 처리기 깊이계
- 처리기 축회전수계
- 처리기 경사계
- 광과촉거의(트랜스)
- 처리기에 매달린 하중계
- 처리기 축회전모터의 유압계 또는 전류계

② 공 타
처리구역내의 사전 보링위치 혹은 근접구역에서 시멘트 슬러리의 주입을 수반하지 않는 처리기를 관입하고 설계를 만족하는 깊이, 하중, 회전수, 토크, 관입속도 등 각 계기의 시공관리기준치를 설정한다.

③ 시험말뚝 타설
사전의 실내 배합시험에 의하여 설정된 시멘트 첨가량으로 본 공사와 같은 처리말뚝의 타설을 한다. 그때 시멘트 첨가량을 증감한 시험말뚝도 타설하여 정규 말뚝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험말뚝의 타설위치는 본 공사 처리구역의 린접위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년도에 걸친 계속 시공에서는 차년도 이후의 시험말뚝 시공을 생각하는 일도 있다.

시험말뚝 타설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개량토의 강도와 균일성
- 처리말뚝의 착저성
- 린접처리말뚝과의 접합성
- 처리기의 안정성
- 기타의 기계 특성

(7) 시험말뚝 확인 보링
설정된 시멘트 첨가량으로 소요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시험말뚝에 대하여 확인보링(올코어샘플링)을 하고, 강도 및 균일성을 확인한다.

확인보링에 있어서는 데니슨형, 더블코어튜브, 트리플튜브샘플러 등 개량토의 일축압축강도 1~60kg/cm²에 상응한 샘플러를 사용하여 양질코어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 또 샘플러 직경은 φ86mm나 φ116mm 등 비교적 큰 직경의 것으로 한다. 또 비트는

다이아몬드비트 혹은 메탈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항목으로서는 일축압축강도, 단위체적중량, 함수비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시험실시의 재령은 7일 및 28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시멘트 반입
시멘트의 반입은 시멘트 운반대선(태선상에 시멘트 사일로 설치)을 이용하여 처리선이나 플랜트선의 시멘트 사일로에 운반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처리선이나 플랜트선을 가장 가까운 안벽에 접안하여 시멘트롤리차에서 직접 시멘트 사일로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9) 처리말뚝 타설
처리말뚝 타설순서를 그림 4.5.5에, 시멘트 슬러리 혼연순서를 그림 4.5.6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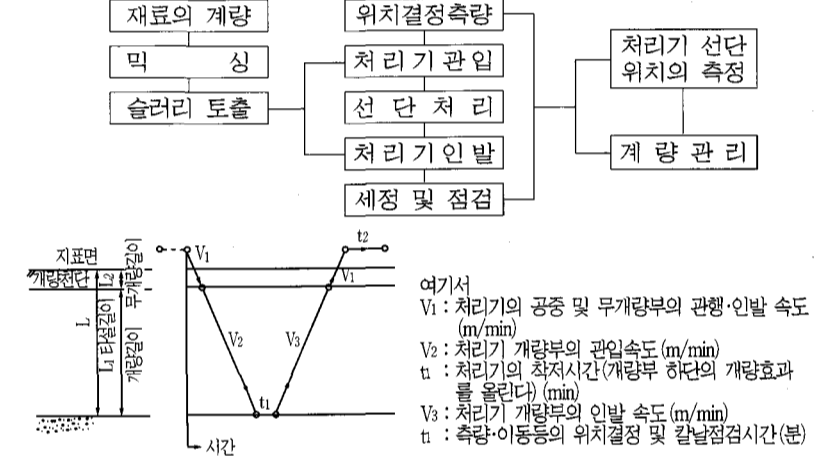


그림 4.5.5 심층혼합처리말뚝 타설순서

2002년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이전 비과세 신설

2001년에는 매달 95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5% 늘어난 99만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게 되어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게 됩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2002. 2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계획
■근로시간단축은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계가 실업감소와 고용유지의 방법으로 이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의 필요성 증대, 고용창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와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 10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간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의 주요내용>
-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단축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 및 휴일·휴가의 사용 확대
- 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시간 쟁점사항은 연월차 휴가의 상한선과 임금보전의 범위 및 주5일제 시행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상한선
- 경총은 일본기준 10~20일 안, 한국노총은 18~22일 안을 주장
●임금보전
- 노동계 : 주5일제가 되더라도 임금수준 자체가 저하되어서는 안됨
- 경영계 : 연월차휴가 수당 분까지를 보전해주는 곤란
●제도 시행시기
- 노동계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002년 전면시행
- 경영계 : 아무리 빨라도 2003년 이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0년뒤 시행을 주장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제공>

생활정보